

전남도, 9월 친환경 농산물에 영광 '블루베리'

장세원 씨,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 등 노력... 고소득 실현

전남도는 9월의 친환경농산물로 '영광 블루베리'를 선정했다.

블루베리는 폴리페놀과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기억력 개선, 시력 보호, 심혈관 질환 예방 등 건강에 좋은 대표적인 슈퍼푸드로 알려져 있다.

영광읍에서 블루베리를 재배중인 장세원(73세) 씨는 도시에서 사업을 하다 2000년대 초 귀농해 농업에 입문했다. 2001년 오디 농사로 첫발을 뒀으나, 2000년대 후반 블루베리가 슈퍼푸드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오디를 대체할 작목으로 블루베리 재배에 도전했다.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과 기술 습득, 시설투자 등 끊임없는 노력으로 현재 선도 농가로 활동 중이다.

장세원 씨는 "수확량은 일반 재배보다 적고 병해충 관리가 까다로워 비용도 많이 들지만, 환경과 사람을 생각하는 가치 있는 농업이기에 친환경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며 "내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블루베리를 재배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총 1만 7천920㎡의 면적에서 약 8톤의 유기농

블루베리를 생산해 2억 5천만 원 이상의 연소득을 올리고 있다. 생산량의 90%는 베리베리코리아(주)와 광주서부공판장 등에 납품되며, 직거래를 통해 소비자에게도 직접 판매되고 있다. 특히 극조생 품종(테무진)을 도입해 2월 중순부터 출하가 가능해 일반 품종(4-6월 출하)보다 이른 시기에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1kg 당 2월 출하 시에는 11만 원, 3월 출하 시에는 8만 원 이상에 판매되는 등 고소득을 실현하고 있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장세원 씨처럼 도시에서 귀농해 친환경 농업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사례는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농업을 실현하는 농가가 경제적으로도 안정되도록 기술과 판로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영광의 친환경 블루베리 재배면적은 9만 3천592㎡, 연간 43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13농가가 참여해 공판장과 직거래를 통해 약 12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영광/이현식 기자



HD현대삼호는 지난 16일 국립목포해양대학교에서 열린 기증식에서 길이 2.04m, 폭 0.44m, 높이 0.53m 규모의 LNG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모형을 전달했다.

HD현대삼호, 우수 인재 양성 및 산학 협력 강화 일환

목포해양대에 LNG 이중연료 컨테이너선 모형 기증

HD현대삼호(대표이사 김재을 사장)가 조선해양 산업의 미래를 이끌 우수 인재 양성과 산학 협력 강화를 위해 국립목포해양대학교에 LNG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모형 선박을 기증했다.

HD현대삼호는 지난 16일 국립목포해양대학교에서 열린 기증식에서 길이 2.04m, 폭 0.44m, 높이 0.53m 규모의 LNG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모형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기증은 조선해양 분야의 친환경 전환 흐름을 반영하고,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한 ESG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에 기증된 모형은 HD현대삼호에서 실제 건조·인도한 세계 최초 LNG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선을 1/200로 축소 제작한 전시품이다. 해당 선박은 20피트 컨테이너 약 15,000개를 적재할 수 있는 초대형 선박으로, 글로벌 친환경 해운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상징하는 대표 사례다.

모형 선박은 대학의 교육과 연구, 실습 과정에서 활용돼 학생들에게 친환경 선박 기술과 선박 구조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립목포해양대 한원희 총장은 "이번 기증은 우리 대학의 교육·연구 환경을 한층 강화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LNG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모형을 통해 미래 조선해양 산업의 핵심 기술을 학생들이 접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재을 사장은 "모형 선박 기증은 미래 세대가 조선해양산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앞으로도 산학 협력과 지역 연계를 강화해 해양 교육과 연구, 문화 확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희선 기자

함평군 월야면 복지기동대,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구슬땀'

노후 벽지·장판 직접 교체하며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

전남 함평군(군수 이상익) 월야면 복지기동대가 독거노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이웃사랑에 앞장섰다.

함평군은 17일 "월야면 복지기동대(대장 정정오)가 지난 11일 독거노인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활동에는 복지기동대원 15명이 참여해, 이른 아침부터 반나절이 넘도록 땀 흘리며 봉사를 이어갔다.

이번 봉사는 거동이 불편하고 가정 형편도 어려워 집을 제대로 손볼 수 없었던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됐다. 해당 가구는 벽지 곳곳이 들떠 단열 기능이 크게 낮아진 상태였으며, 장판도 심각하게 훼손돼 생활

에 큰 불편을 주고 있었다.

복지기동대는 필요한 자재를 직접 구매하고, 도배와 장판 시공을 모두 손수 진행했다. 벽지는 풀을 직접 개어 붓질을 반복하며 깔끔하게 도포했고, 장판도 현장에서 정확히 치수에 맞춰 재단하고 빈틈없이 설치해 주거 공간을 한층 아늑하게 개선했다. 또, 오랜 시간 홀로 지내며 외로움을 느낀 어르신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정서적 위로도 함께 전했다.

어르신은 "혼자서는 도저히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일을 이렇게 직접 와서 도와주니 너무 감사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홍명희 월야면장은 "복지 사각지대 놓



인 이웃을 위해 항상 발 벗고 나서는 복지기동대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함평군 월야면 복지기동대는 주거환경 개선, 생활 불편 해소, 긴급 복지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함평/전광춘 기자

보성군 문덕면 여성자원봉사회, 추석맞이 밑반찬 나눔 봉사

취약계층 어르신 30가구에 따뜻한 정성과 사랑 전달

보성군 문덕면 여성자원봉사회(회장 이명자)는 지난 16일, 추석을 맞아 홀로 명절을 보내는 취약계층 어르신 30가구에 정성 가득한 밑반찬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에는 회원 20여 명이 참여해 이른 아침부터 돼지갈비찜, 양념계장, 파리고추볶음, 열무김치 등 반찬을 정성껏 준비했다.

모든 재료는 보성산 신선한 농산물을 사용했으며, 어르신들의 입맛과 건강을 고

려해 담백하고 부드럽게 조리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더했다.

조리부터 포장·배달까지 회원들이 직접 참여했으며, 반찬을 전달하면서 안부를 묻고 말벗이 되어주는 등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도 함께했다.

이명자 회장은 "추석을 앞두고 외롭게 명절을 보내실 어르신들을 한 분 한 분 생각하며 마음을 담았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느끼시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정화 문덕면장은 "명절마다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을 이어주시는 여성자원봉사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행사가 명

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김은기 기자



건보 광주전라제주본부, 집중호우 피해복구 성금 전달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본부장 이영희)는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광주광역시 북구와 전라남도 담양군, 나주시, 함평군, 무안군에 각 500만원씩 총 2,500만원의 피해복구 성금을 기탁하였다.

이번 집중호우로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농경지 침수, 도로 및 기반시설 파손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특별재

난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주민들의 생활에 큰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이영희 본부장은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아픔을 나누고, 재난으로부터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원 기자

2025 장성 방문의 해

국내 최대 규모 인공조림 속령산 편백숲

장성이 보내온 힐링 초대장